

완벽한 실력으로 안전한 환경을 만든다

포항공과대학교 안전보건관리자 최종민

글 김아름 대한산업보건협회 경북산업보건센터 사내기자 사진 박성희(페이스 스튜디오)



최종민 안전보건관리자

1990년

포항공과대학교 입사, 학과안전 담당

2020년 4월 1일~2023년 현재

안전팀 소속 안전보건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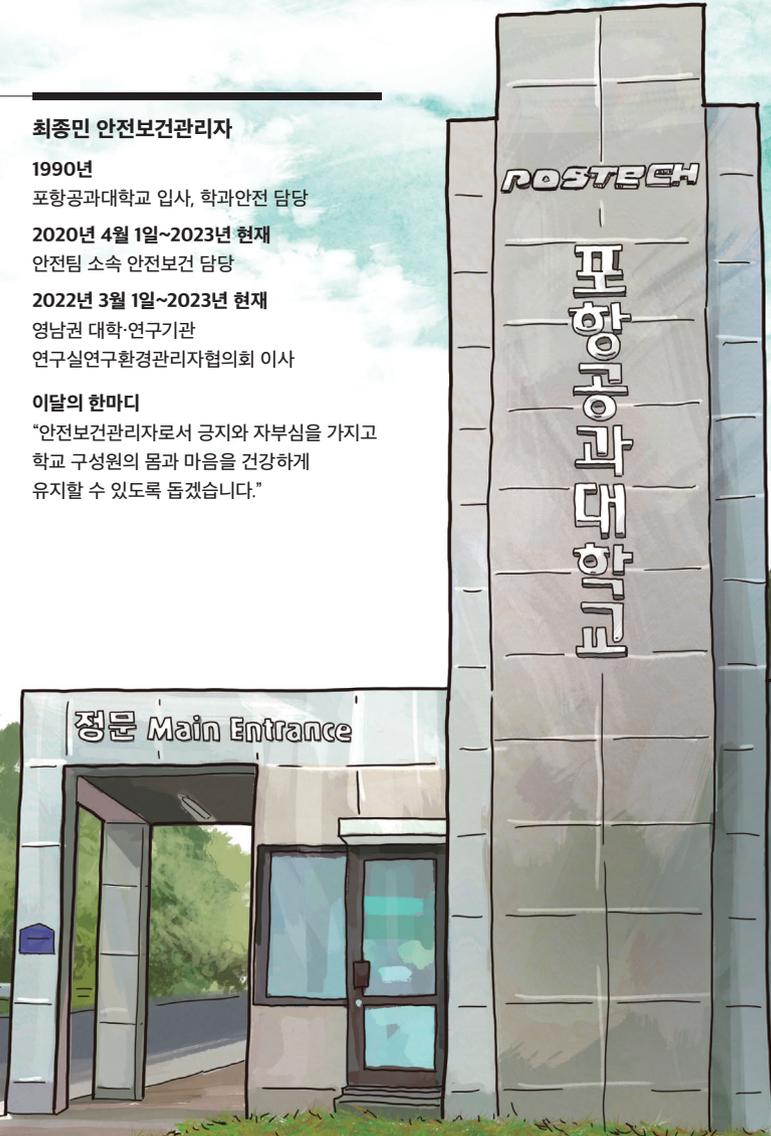
2022년 3월 1일~2023년 현재

영남권 대학·연구기관

연구실연구환경관리자협의회 이사

이달의 한마디

“안전보건관리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 구성원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포항공과대학교(이하 포스텍)는 국내 최초 연구 중심 대학이다. 70여 개의 교내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고체물리학, 생명과학, 재료과학, 바이오프린팅 분야에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이며 SCI게재 논문 수 매년 1500편, 특허출원 및 등록 300건을 기록하고 있다.

새로운 연구를 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은 화학물질과 유해인자를 다루 위험에 노출되기 쉽기에 사소한 실수나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포스텍 학생들, 연구생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책임지는 이가 바로 포스텍 안전팀의 최종민 과장이다.

최종민 과장은 평소 꼼꼼하고 세심한 안전보건관리자로 대한산업보건협회 경북산업보건센터(이하 경북센터) 직원들에게 소문이 자자하다. 경북센터 건강진단팀은 포스텍에서 연구활동을 하며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약 1,200명을 대상으로 매년 특수건강검진을 담당하고 있다. 검진은 보통 이른 아침에 시작하는데, 최종민 과장이 늘 먼저 도착해 검진 진행을 돕는다.

30년 차 안전 업무 베테랑

최종민 과장은 1990년에 포스텍에 입사해 학과에서 안전 업무를 수행했다. 구 매관재, 학사관리, 연구관리 등 순환보직 업무를 수행하다 학과에서 15년간 학과 안전담당자로 업무를 수행한 이력으로 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됐다. 지금은 2020년 배정받은 안전팀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학교에서 30년 넘게 재직하면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한 끝에 안전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죠. 2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지만 조직의 재편성에 일조를 한 덕에 안전팀을 총장 직속으로 개편할 수 있었습니다.”

좀처럼 식을 줄 모르는 업무 열정 때문일까. 최종민 과장은 2022년 3월부터 영남권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실연구환경관리자 협의회에서 이사직을 맡고 있다. 또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보건안전문화 정착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공로로 2022년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유공자 수상자로 선정됐다.

안전팀, 포스텍의 어벤저스

포스텍의 안전팀은 1987년 개교 이래 2011년까지 안전업무를 총무팀에서 수행했다. 2009년 총무인사팀에서 총무안전팀으로 부서명이 바뀌며 본격적으로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되었으며 2018년 안전팀으로 분리가 됐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포스텍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안전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안전팀은 신재범 팀장을 중심으로 중대처벌법 대응 담당자, 연구실 안전, 소방, 방사선, 생물안전, 보건실, 안전 순찰자, 사무 보조까지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팀원들은 각자 맡은 업무를 빈틈없이 수행하기 위해 매순간 최선을 다한다. 최종민 과장은 연구실 안전 총괄과장으로 안전팀 예산관리, 학기별 안전교육 미 이수 구성원의 패널티 부과, 안전관리통합시스템 관리, 특수건강검진 업무를 하고 있다.



- ❶ 포스텍 안전팀은 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각자 맡은 업무를 빈틈없이 수행하기 위해 노력한다.
- ❷ 평소 꼼꼼하고 세심한 성격으로 정평이 난 최종민 과장.
- ❸ 최종민 과장은 포스텍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베테랑 안전보건관리자다.



안전팀은 학생들과 직원들의 안전교육에도 많은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코로나19로 대면 교육 및 캠페인 등 외부교육을 하지 못하다가 2022년 코로나 19가 완화되면서 소방의 날 캠페인, 심폐소생술 교육 및 경연, 안전체험부스 운영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이 중 구성원의 좋은 반응을 얻은 ‘안전 골든벨’ 행사는 온라인 연구실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서바이벌 방식이었다. 중대재해, 연구안전, 화재, 안전의식을 문제로 출제해 경각심을 되새기는 동시에 즐거운 배움의 시간을 만들었다. 지루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안전팀원들 모두가 다양한 아이디어와 소통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❶ 최종민 과장은 퇴직 전까지 헬스케어센터를 포스텍에도 도입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다.

더 안전한 캠퍼스를 위해

요즘은 길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2종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가능해 이용자가 더욱 늘었다. 포스텍 캠퍼스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전동킥보드 헬멧 착용이 의무화됐는데도 헬멧을 안 쓰거나 인도에서 킥보드를 스스럼없이 타는 사람도 있다. 그만큼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 안전팀 입장에서는 교내에서 헬멧 및 장갑 등 보호대 착용을 의무화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강제적 착용에 대한 반감이 크다.

“가장 중요한 건 사용자들의 인식 개선이에요. 이동수단의 올바른 사용법 캠페인을 실시하여 킥보드이용자의 안전 기준 강화와 인식 개선을 이뤄나갈 것입니다.” 캠퍼스의 안전요소 하나하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최종민 과장은 총무팀에서 관리하는 경비업무를 2023년부터는 안전팀으로 배속시켜 38명의 경비업무 종사자들이 교육을 통해 더욱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산업보건인의 업무나 성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변방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는 분이 많을 겁니다. 현장에서 산업인들의 건강을 보전하고 증진시키는 것이야말로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을 지켜주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산업보건인 여러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이런 그에게는 퇴직 전까지 이루고 싶은 바람이 하나 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같은 헬스케어센터를 포스텍에도 도입하는 것. 그렇게 학교 구성원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해줄 전문인력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으로 발전시키고 싶다.

끊임없는 안전과 보건에 대한 관심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안전팀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 최종민 과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감과 노력이 있기에 가능하다.

이들 덕분에 오늘보다 내일 더 안전하고 건강한 포스텍이 될 것이다. 🍷

Mini Interview

소통과 배려로 만드는 안전한 일터 포스텍 안전팀 신재범 팀장

신재범 팀장은 1995년 입사하여 신소재공학과에서 일을 시작했다. 2003년 안전파트로 부서를 이동하여 안전담당자로 근무하며 2022년부터 포스텍 안전팀 팀장을 맡고 있다. 중대산업재해 안전업무 총괄, 안전관리위원회 간사, 안전이슈 관리 및 안전팀 총괄 업무를 수행한다.

‘나부터 실천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수행한 지 30년이 되어가는 신재범 팀장의 하루 일과는 회의로 시작해 회의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캠퍼스 안 작은 안전사고로 시작해 폭력, 성폭력, 자살, 코로나 등으로 인한 캠퍼스 내 이슈와 관련한 회의가 줄곧 이어진다. 또 매년 바뀌는 안전법규 해석, 문서 보고, 심의 결정 등을 거쳐 대학 규정을 만든다.

신재범 팀장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팀원들 간의 소통과 배려’. 회의가 없는 업무 시간에는 팀원들이 어려워하는 일이나 곤란해하는 일을 팀장 스스로 찾아서 돕는 편이다. 팀원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잘 아는 리더가 있어 즐거운 업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조직에서는 팀 상호 간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심시간을 활용해 팀원들과 대화를 많이 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스텍은 우수 연구실 인증제로 인증을 받은 안전한 연구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대학의 안전한 연구실 환경 조성을 선도해 나가는 포스텍 안전팀이 되겠습니다.”

